특 집

新左派의 文化大革命 認識* **

孫承會***

〈차 례〉

1. 서론
2. 신좌파의 등장과 대안적 근대 모색
3. '역사로서의 문혁' 인식
4. 결론

【국문초록】

新左派는 毛澤東思想과 文革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새로운 세계적 흐름 가운데 문혁의 전면 부정, 망각이란 현실을 거부하고 그 안에서 '합리성'과 '이성'을 찾고 '미래의 대안적 근대성'을 모색하였다. 동시에 신좌파는 '반정치성의 정치성'(王暉), '낡은 담론구조'의 한계(崔之元), '혁명가가 아닌 반란가'의 한계(王紹光) 등을 통해 문혁의 폐해와 실패를 지적하였다. 신좌파의 이러한 문혁 평가

* 이 연구는 2011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211-A-380-125).
** 이 논문은 2013년 11월 8일 동아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3회 영호남 4개 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연합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 영남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의 배경에는 ‘반근대성적 근대성’의 추구(王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제도적 초월(崔之元),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또는 사회과학적 분석(王紹光) 등 접근 방법의 상이함이 존재했다. 이렇듯 신좌파는 문혁 전면 부정론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문혁의 실패를 인정하였다. 그들은 득/실, 공/과, 이성/광란, 이념/정치라는 상호대립적인 두 요소가 문혁에 동시에 내포되어 있음에 대해 동의한다. 그런데 신좌파가 문혁 평가에 집착하는 목적은 단순히 ‘역사로서의 문혁’을 추구하려는 데에만 있지 않다. 그보다는 전지구적 자본주의화시대에 이루어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심화되어 가는 새로운 차별, 새로운 사회모순의 극복을 위해 문혁시기에 시도되었던 서구 자본주의와 소련 사회주의와 구별되는 실험을 새롭게 평가하여 중국의 현재와 미래에 적용하려는 현실적 필요에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실증적 역사가라기보다는 현실참여 또는 현실 비판적인 지식인 집단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혁이란 ‘역사로서의 문혁’이라기보다는 ‘신념으로서의 문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주제어: 文化大革命, 新左派, 대안적 근대, 근대(성)

1. 서론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은 禁區[1]이다. 적어도 한국 내의 중국현대사학계에서 그러하고 일부 좌파적 지식인을 제외한 중국에서

1) 한국의 중국현대사 연구에 대한 禁區의 설정과 그로 인한 한계에 대해서는 孫承會, 「“禁區”에 대한 도전 - 중국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 -」, 『歷史學報』 191, 2006 참조.

그러하다. 한국 학계의 경우 그것은 정치(또는 이데올로기)와 학문의 엄격한 구분을 강조하는 실증주의적 학풍에 영향을 받은 냉전주의적 사고의 결과일 수도 있고, 급진적 공산주의에 대한 무의식적 거부에서 오는 몰지성적 태도의 한 결과일 수도 있다. 중국에서 문혁(관련 연구나 언급)이 금구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두 가지의 계기가 있다. 하나는 잘 알려져 있듯이 문혁을 '10년 動亂', '10년 內亂'으로 명확히 규정한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2] 라는 중국공산당의 공식적 견해이다. 이러한 규정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문혁을 논의하는 것은 현 중국 학계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민중에게 불가능할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의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3] 다른 하나의 계기는 1989년의 天安門事件이라 할 것이다. 이때 보여주었던 민중의 자율적 에너지는 그 지향과 배경이 무엇이든 당 지도부에게는 오사운동의 '德先生'[德莫克拉西: 민주]·'塞先生'[塞因斯: 과학]으로 표상되기보다는 문혁의 '大民主'(4대 민주: 大鳴, 大放, 大字報, 大辯論)로 비춰졌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공산당에게 문혁은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손쉬운 도구로 전락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론에서 주로 살펴보게 될 대표적 신좌파 지식인 王暉는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重慶事件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 주지하다시피 문혁은 중국에서 일종의 금기에 속하는 사안이다. 그

---

2) 원래의 명칭은 1981년 6월 중국공산당 11기 6중 전회에서 채택된 「關于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이다. 이를 통해 문혁은 "영도자의 잘못에서 발동되어 반혁명집단에 이용당하여 당과 국가 및 각 민족인민에게 엄중한 재난을 야기한 내란"이라 규정되었다. 발표 원문과 주석에 대해서는 허원 옮김, 『정통중국현대사 - 중국공산당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 -』, 사계절, 1990 참조.

3) 『문화대혁명』(백승욱, 『문화대혁명』, 살림, 2007)의 부제가 '중국 현대사의 트라우마'인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 것은 철저하게 부정된 것임과 동시에 공개적 연구가 허용되지 않는 대상이다. 정치적 공공 영역에서 이것은 분석될 필요도 없고 해명도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政敵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것은 마치 악마의 주문과도 같아서 정적을 정치적으로 고소하고 공격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뿐 공개적인 토론에서는 사용될 수 없으며 오로지 정치적 박해의 도구일 뿐 역사적 분석의 도구가 될 수는 없다.[4](밑줄은 인용자, 이하 동일)

이 말은 2012년 3월 14일, 重慶市 前書記 薄熙來의 '重慶모델'을 지목하여 溫家寶 총리가 '문혁의 재등장' 위험성을 경고한 데에 대한 王暉의 반박이었다.[5] 즉, 총리의 발언이 사상적 토론을 압살하고 정치적 적수를 공격하며 심지어 정치적 박해를 자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과 실체에 근거하지 않고 역사적 분석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정치적 수사'였음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었다.[6] 따라서 문혁이 종결된 후 40여 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조차 문혁은 '역사'가 아닌 '정치'와 '개인적 傷痕'[7]으로 남아 '신화' 또는 '전설'의 영역으로 존재할 뿐이다.[8]

---

4) 王暉, 성근제 역, 「충칭사건: 밀실정치와 신자유주의의 권토중래」, 『역사비평』 99, 2012, p. 176.

5) 저명한 문혁 연구자인 徐友魚 역시 이 사건을 빌어 문혁이 여전히 당대 중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徐友魚, 「文革對當代中國政治的影響」(갱신시간: 2013.7.31), http://www.aisixiang.com/data/66291.html, 검색일 2013년 8월 13일.)

6) 이에 대해 王暉의 글을 해제한 성근제는 그가 문혁과 관련된 강령성 문건인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의 현재적 유효성과 정당성까지 간접적이지만 부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성근제, 「왕후이가 바라보는 중국 정치 개혁의 방향」, 『역사비평』 99, 2012, p. 191 참조.)

7) 1980년대 중국의 '傷痕文學'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등장하였다. 이는 계몽주의적 자극 아래 야만적이고 봉건적이며 인간파괴적인 문혁을 폭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둔 문학적 경향이라 할 수 있다.

8) '역사로서의 문혁'이 강조되어 본 논문의 제2장 제목이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Jeseph W. Esherick, Paul G. Pickwicz, and

하지만 같은 사정 때문에 문혁은 '금구'에서 반대로 '금광'으로 변모할 수 있다. 최근 문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대두되어 하나의 '문혁(연구)열'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9]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경향은 서구 신좌파(Neo-Marxist)가 새롭게 제기한 毛澤東思想과 문혁에 대한 재평가를 둘러싼 논란이라 할 것이다.[10] 이러한 서구의 새로운 문예비평이론에 자극을 받은 일군의 중국 지식인들도 논쟁에 동참하여 毛澤東 시대와 문혁을 '대안적 근대' 모색을 위한 실험이었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기 시작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중국의 신좌파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등장하게 된 과정, 문혁과 관련된 그들의 주장 내용 그리고 그것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신좌파의 등장과 대안적 근대 모색

중국 신좌파의 정의, 등장 과정, 범위, 1990년대 신자유주의자

Andrew G. Walder,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as History*,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加加美光行, 『歷史なかの中國文化大革命』, 岩波書店, 2001 역시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다.

9) 문혁 연구의 현황과 자료 소개에 대해서는 孫承會, 「文化大革命 極左派 사상의 형성 - 湖南 省無聯을 중심으로 - 」, 『中國近現代史硏究』 57, 2013, pp. 207-209와 주①; 안치영,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 자료 안내」, 『현대중국연구』 8-2, 2007 참조.

10) 대표적으로 郭建은 Sartre, Foucault, Habermas, Althusser, Dirlik, Jameson 등 서구 좌파 이론가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Guo Jian, "Resisting Modernity in Contemporary China: The Cultural Revolution and Postmodernism", *Modern China* 25-3, 1999(이하 Guo Jian 1999로 약칭); 郭建, 「文革思潮與「後學」」, 『二十一世紀』, 1996. 6, 總第35期; 郭建, 「當代左派文化理論中的文革幽靈」, 『二十一世紀』, 2006. 2, 總第93期 참조.

와의 논쟁, 내부의 분화 및 차이 등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11] 하지만 문혁에 관한 그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이 없어 보인다.[12] 따라서 이하에서는 신좌파 일반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뒤 문혁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崔之元은 신좌파라는 용어의 등장과 개념, 구성원 그리고 담론의 확산 과정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하였다.[13] 그에 따르면 1994년 崔之元 자신이 북경 한 학회에 『新左派評論』(*New Left Review*) 편집인 로빈 블랙번을 소개한 사실을 계기로 『北京青年報』 편집인 楊平이 「중국에서 신좌파의 출현」이란 제목의 기사와 함께 崔之元의 논문 「제도혁신과 제2차 사상해방」[14]이 발췌 수록된 데서 신좌파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또한 王暉의 논쟁적인 글 「중

---

11)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국내 연구가 있다. 조경란, 「중국에서 신좌파와 비판적 지식인의 조건」, 『시대와 철학』 24-1, 2013; 김도희, 「중국의 신좌파와 자유주의: 1990년대 지식인 논쟁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6-3, 2008; 안인환, 「중국 '신좌파'의 대중문화 담론 고찰」, 『중국현대문학』 53, 2010; 박승현, 「세계화와 90년대 중국 지식인의 대응: '자유주의'와 '신좌파'를 중심으로」, 『철학탐구』 19, 2006; 박영미, 「계몽과 현대성 - 중국 신좌파의 현실인식과 지향」, 『한국철학논집』 29, 2010; 황희경, 「현대중국의 '신좌파'와 자유주의 논쟁」, 『동아시아역사연구』 6, 1999; 이욱연, 「중국지식인 사회의 새로운 동향: '신좌파'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16, 1999.

12) 한 예로 신좌파 지식인 王紹光의 民主觀을 검토한 瀧田豪는 毛澤東과 문혁에 대한 분석을 훗날의 과제로 미루고 있다.(瀧田豪, 「中國「新左派」の民主化論 - 王紹光を中心に -」, 『産大法學』, 43-3·4, 2010.2, p. 257 주68) 참조.)

13) 이하 사실은 崔之元 · 백승욱, 「중국식 사회주의 길의 꿈」,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창비, 2005, pp. 182-183 참조.

14) 이 글은 본래 「制度創新與第二次思想解放」이란 제목으로 『二十一世紀』, 1994年 8月號, 總第24期에 실렸고 崔之元, 위의 책, pp. 85-106에 번역 수록되어 있다.

국 사상계의 현황과 근대성 문제」가 1997년 『天涯』에 발표되면서[15] 신좌파 담론은 확산되었고 이 둘 이외에 甘陽, 馮同慶, 王紹光, 胡鞍鋼, 黃平, 韓毓海, 張旭東, 王小强 등이 그 성원으로 거론되었다고 하였다.[16] 본고에서는 참여자들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이후 나타나는 중국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정치, 경제의 민주화의 대안적 발전을 모색하는 일군의 지식인을 통상적으로 알려진 신좌파로 지칭한다. 또한 위에서 소개한 인물 가운데 王暉, 崔之元 외에 王紹光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王暉와 崔之元이 각각 사상·경제제도의 측면에서 주로 연구활동을 전개하였다면 王紹光은 문혁과 관련된 역사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좌파란 어떠한 특징을 지녔는가? 먼저 崔之元은 중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신좌파의 위상을 지식인 지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17]

---

15) 원제는 「當代中國思想的現況與現代性問題」이다. 『창작과비평』(1994년 겨울호)에 처음 발표된 이글은 수정·보완되어 『天涯』(1997년 제5기), 『文藝爭鳴』(1990년 제6기), 『死火重溫』(人民文學出版社, 2000(김택규 옮김, 『죽은 불 다시 살아나: 현대성에 저항하는 현대성』, 삼인, 2005))에 각각 재수록되었다.

16) 반면 대표적 신좌파로 거론된 王暉는 신좌파란 용어 대신 '비판적 지식인'이란 용어를 선호하였다. 왜냐하면 신좌파라는 용어는 우익자유주의자가 '좌파'를 가리켜 문혁으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집단임을 암시하기 위해 사용한 꼬리표였기 때문이었다. 또 그는 관방 '좌파'와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甘陽의 '자유주의 좌파' 개념을 받아들이기도 했다.(王暉, 「신비판정신」, 『고뇌하는 중국: 현대 중국 지식인의 담론과 중국 현실』, 도서출판 길, 2003, p. 88; 王暉·이욱연, 「대안적 세계를 향한 아시아 연대」,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창비, 2003, pp. 230-231.) 이러한 배경에서 崔之元 역시 최근에 신좌파라는 규정이 작위적이라고 비판하였다.(崔之元, 「21세기에 사회주의를 실험하다」, 이창휘·박민희 엮음, 『중국을 인터뷰하다』, 창비, 2013, p. 204.)

17) 양파에 대한 이러한 도식화는 다른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경제학의 측면에서 '신좌파'(맑스경제학)와 '新制度派'(서방경제학)의 구분과 대

	경제민주주의	과점적 사유화
정치민주주의	신좌파	정치적 자유주의
권위주의	구좌파?	경제적 자유주의

간략한 개념도이지만 신좌파와 구좌파의 차이 그리고 민주와 자유의 차이, 좌파와 자유주의자의 차이 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좌파는 신/구를 막론하고 경제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과점적 사유화를 반대하지만, 그것을 권위주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민주주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한다는 면에서 신좌파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사상가로서 중국 사상계의 현황과 근대성 문제를 천착한 王暉는 경제학자 崔之元에 비해 좀 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좌파와 자유주의자를 비교하였는데 그 역시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겠다.[18]

	자유주의자	신좌파
역사인식	혁명적 비극에 대한 전면적 부정	혁명적 유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현실관	시장・발전의 중시	시장・발전 환상 거부
사회목표	역사종말론	대안적 발전 모델 모색

이 역시 간단한 것이지만 王暉의 세계관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전지구화시대의 신자유주의가 창조한 시장주의의 환상

립적 논점 비교에 대해서는 宮川彰, 「中國のマルクス經濟學研究はどうないつているか」, 『季刊中國』 101, 2010. 夏季號, pp. 18, 21에 등장하는 圖1 [中國經濟學者の「新左派」・「新制度派」の勢力圖・布陣], 圖2[「新左派」(マルクス經濟學と「新制度派」(西方經濟學)との對立論点] 참조.

18) 표는 王暉・이욱연, 「대안적 세계를 향한 아시아 연대」,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창비, 2003, pp. 231-232를 참조해 작성하였다.

을 거부하고 대안적 사회발전 모델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개혁·개방 이후 전개되고 있는 각종 차별이 심화되는 중국 현실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王暉와 崔之元 둘 다 대안적 미래를 위한 중국과 세계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는 공통점을 지녔지만 주로 경제적 혹은 제도적 대안 모색[19]에 주력한 崔之元에 비해 王暉는 사상계 현황 혹은 정책의 사상적 배경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신좌파로서의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하였다.

王紹光은 정치이론 분야에서 신좌파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王紹光은 현존 '민주주의의 결핍'(Democracy Deficit)을 극복하고 거세된 혹은 無害化 처리 과정을 거친 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했다. ①추첨으로 선거를 대체해 민중의 정치 참여의 강도를 높인다(추첨제 민주주의). ②토의를 강화하여 민중의 정치 참여의 심도를 높인다(토의 민주주의). ③현대의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민중의 정치 참여의 폭을 높인다(전자 민주주의). ④정치를 초월하여 민주주의로서 민주의 원칙을 더욱 광범위한 영역, 특히 경제적 영역에 적용한다(경제 민주주의). 이상 王紹光의 목표는 현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초월/대안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신좌파의 민주관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즉 그는 서구의 복수정당제와 대의제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민

19) 구체적으로 崔之元은 '신진화론', '분석적 맑스주의' 그리고 '비판법학'이란 서구이론을 통해 시장/계획, 자본주의/사회주의의 이분법을 넘어선 대안적 세계-'쁘띠부르주아 사회주의'를 구상하였다. 그의 '소상품생산'(petty commodity production) 도입, 독립자영농 민주주의(yeoman democracy), 소규모 독립 소유 실현, '권리의 묶음'으로서의 소유권 개념 재해석, '초자유주의'(superliberal)의 기획, 노동자 주식제 하의 '사회배당'(social dividend) 개념 도입, 포스트-포드주의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도 동일한 이상에서 추구됐다고 할 수 있다.(崔之元「나의 사상역정」,「제도혁신과 제2차 사상해방」,「중국식 사회주의 길의 꿈」,『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창비, 2005.)

주'가 아닌 '選主'[상전 선출]라 비판하면서 근본적 민주주의(radical democracy)를 주장하였다.[20]

이상, 본고의 주된 논의 대상인 王暉, 崔之元, 王紹光은 사상·경제·정치 등 자신의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개혁·개방 이후 나타난 현 중국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적 미래를 모색하였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러한 전망이 신좌파의 문혁인식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혁이 지닌 의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개인적) 경험으로서의 문혁'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는 정치적 사유와 경험의 관련성이라는 일반적인 이유 이외에도 신좌파에 대한 공격 가운데 그들이 문혁의 비극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毛澤東 시대의 '합리성'을 발굴하자는 순진한 주장을 제기한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21]

먼저 王暉에게 문혁은 온전한 소년시절의 깊은 낙인으로 기억되었다. 문혁은 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1966년에 시작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종결되었다. 스스로 분명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부모는 숙청된 관원 혹은 지식인으로 문혁 탄압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형제들은 농촌으로 下放되었다. 그의 기억 속에 등장하는 문혁은 "다소 무정부주의적으로 폭력이 만연하고 전에 없이 느슨한 분위기에서 생활"한 것이었다. 그러나 王暉는 이러한 경험 속에서도 문혁의 기억이 탄압받은 부모나 下放당한 형들 세대의 것이었음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즉 문혁에 관한 그의 기억은 농민이나 노동자의 문혁 기억이 없는 데에

---

20) 王紹光 지음·김갑수 옮김, 『民主四講: 중국, 경제성장의 길목에서 민주주의를 묻다』, 에버리치홀딩스, 2010, pp. 367-388. 또한 王紹光의 民主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瀧田豪, 앞의 글 참조.

21) 신좌파에 대한 비판은 이욱연, 「중국 지식인 사회의 새로운 동향」, 『중국현대문학』 16, 1999, pp. 496-500 참조.

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단편적이고 조각난 것이다.[22]

문혁이 종결된 1976년 13살에 불과했던 崔之元은 문혁과 관련된 특별한 개인 기억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좌파 3인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王紹光은 문혁의 풍파를 피해갈 수 없었다. 그의 진솔한 문혁 경험은 다음과 같다.[23]

> 1966년 문혁이 폭발할 당시 나는 12살이었다. 鄧拓, 吳晗, 廖沫沙 등 '三家村黑店' 비판 시 나는 武漢市 三元里 초등학교 5학년 졸업반이었지만 홍위병운동이 발생할 때에는 무한시 실험중학교 1학년이 되어 있었다. 이로써 나는 기세 높게 일어나는 문혁에 직접 참가할 수 있었다. "천하는 우리의 천하이고 국가는 우리들의 국가이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누가 행동하랴?" 이러한 호기 넘치는 구호에 자극 받아 나는 가방을 메고 몇몇 친구와 함께 수도 북경으로 순환 교류 활동[串聯]에 참가했다. 북경에 머문 동안 우리들은 頤和園 등 명승지를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거리에 나붙은 대자보를 진지하게 베끼며 革命 經典을 얻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북경에서 무한에 돌아온 때는 이미 가을이었는데 학교에 매우 많은 (홍위병) 조직이 등장했다. 나는 '홍위병'에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아마도 성분이 충분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비준 받지 못했다. 마침 '毛澤東思想紅衛兵武漢地區總站'에서 사람을 모집하자 나는 거기에 합류할 수 있었다. 동시에 나는 武漢 2중의 '國際紅衛兵' 조직에도 바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당시 나는 중학교 1학년생에 불과했기 때문에 큰 일을 맡지는 않았다. '혁명'의 짜릿함을 위해 나와 몇몇 동료들은 三元里 초등학교로 돌아와 등사기, 줄판, 등사지, 종이 등을 마련하였다. 후에 '파괴'된 시위원회 건물 내의 한 사

22) 王暉, 「나의 사상 역정」,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창비, 2003, p. 15.

23) 이하 王紹光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王紹光, 「瘋狂歲月里的理性選擇 - 訪王紹光教授談他的文革經歷與文革研究 -」, http://www.aisixiang.com/data/66150.html, (검색일자: 2013년 8월 12일) 참고.

> 무실을 다시 점거하였다. 이로써 우리 자신의 '武漢市毛澤東思想小八路'가 탄생하였고 며칠에 한 번씩 전단지를 인쇄하였다. 가장 우리를 흥분시킨 것은 번화한 시내에서 군중들에게 전단지를 뿌릴 때 느끼는 감정이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가지각색의 전단지를 사람들이 다투어 가지려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정말로 영화 속 혁명가의 짜릿함을 느꼈다.

王紹光 개인의 문혁 경험이지만 당시 문혁에 참여했던 홍위병 일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의 '성분'이 좋지 않았고 그 때문에 부모의 개입으로 일선 홍위병 활동을 중단한 그는 이후 무한에서 전개된 대규모의 무장투쟁, '7·20사건', 혁명위원회의 건립 등 중요 사건의 관찰자 혹은 소극적 참여자로서 문혁에 개입할 뿐이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문혁 경험이 이후 그의 연구 활동에 직접적 계기로 작용된 것은 어쩌면 당연하였다.[24]

하지만 王紹光의 문혁 탐색은 단순히 개인적 문혁 경험과의 관련성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서론에서 王暉가 '정치적 수사'의 대상이 아닌 학문적 역사적 분석 도구로서의 문혁 연구를 주장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 점은 王紹光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먼저 문혁 연구 제한이 문혁에 대한 관방 측의 공식적 부정과 관련 출판물에 대한 엄격한 제한 규정 때문이라 하면서, 그 결과 "보수파와 조반파 양파 모두가 착오"라는 당 중앙의 방침은 문혁에 참가한 兩派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었고

---

24) 王紹光, 『理性與瘋狂-文化大革命中的群衆-』, 香港: 牛津大學出版社, 1993; Wang Shaoguang, *Failure of Charisma: The Cultural Revolution in Wuhan*,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5는 미국 코넬 대학에서 취득한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공간된 것이다. 이밖에 문혁 관련 연구로 Shaoguang Wang, "'New Trends of Thought' on the Cultural Revolu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8-21, 1999; 王紹光, 「拓展文革研究的視野」, 『二十一世紀』, 總第31期(1995. 10) 등이 있다.

문혁 자료라는 '금광'은 봉쇄된 채 연구자에게 개방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보기에 현재 문혁이 '신화'와 '전설'이 됨으로써 후대가 계승할 '유산'이 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25]

이상, 신좌파 3인의 주장을 통해 새로운 문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그들이 새롭게 상상한 문혁상은 무엇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근대, 근대성, 근대주의, 근대화, 반근대주의 등에 대한 간략한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누차 강조하지만 신좌파는 문혁을 통해 대안적 근대(성)를 모색하였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대는 전통과 구별되는 역사적 시기를 의미하고 근대성이란 근대화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신좌파에게 큰 영향을 끼친 아리프 더릭은 근대성을 역사적 조건이라기보다 역사적 경험임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선행하는 역사적 조건과의 명확한 단절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그 자체 내의 내부적 파열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근대화란 근대성의 조건을 생산했고 또 계속해서 생산하는 역사적 과정(들)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근대성의 조건이란 과학적 발명, 산업 혁신, 인구 변화, 도시 팽창, 국민국가, 대중운동 등을 가리키지만 더릭의 경우 이들 모두가 팽창적이며 동시에 크게 동요하는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 의해 촉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혁명 역시 포함시켰다. 이러한 근대화 과정은 본래적으로 근대성에 각인된 근본적 모순에 영향을

---

25) 王紹光, 「拓展文革研究的視野」, 『二十一世紀』, 總第31期(1995. 10), pp. 92-93. 한편 崔之元은 馮驥才의 『一百個人的十年』, 費孝通의 『行行重行行, 뤄이닝커의 『第三隻眼睛看中國』, 『顧准文集』 등 대중에게 주목받았던 문혁 관련 저작물들을 예시함으로써 문혁을 새롭게 조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崔之元, 「마오 쩌둥 문화대혁명이론의 득과 실」, 앞의 책, pp. 47-51 참조.)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비판적 이성, 계몽적 신념에 뿌리를 둔 과학과 과학 정신으로 귀결된다. 반면 동시에 이 과정은 인간 존재 조건을 파괴하고 사회관계를 무너뜨리며 관료 근대국가 내에 인간을 가둬 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더릭이 보기에 근대성의 경험은 근원적인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속의 계속된 실험의 경험이었다. 결국 근대성이란 근대화의 객체뿐만 아니라 주체가 되려는 인간들의 시도로 정의되며 거기에는 '근대화주의'(modernizationism)와 달리 근대화가 지닌 파괴와 희망 모두와 공존하게 될 터였다.

더릭은 반근대주의(anti-modernism) 역시 근대성의 모순으로부터 설명하였다. 그에게 반근대주의란 근대의 출현으로 가능성이 보인 목표 실현을 이룩하기 위해 추동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근대적이 되는 것이 곧 반근대적이 되는 것이다"라는 형용모순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대안적 근대에 대한 추구 역시 이러한 반근대주의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릭은 사회주의 역시 반근대주의지만 근대성 혹은 심지어 근대화를 반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사회주의적 근대성 역시 자본주의의 그것과 동일한 한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근대주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적 이상을 포기했고 근대화의 파괴력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근대성의 상처는 더 완전하고 더 심오한 근대성을 통해 치료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6]

이러한 전제에서 더릭은 일찍이 문혁을 가리켜 "사회주의에 기초한 제3세계의 대안적 근대성을 창조하려던 마지막 노력-그러한 모든 노력 중 가장 감동적인 노력-의 일부로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더릭은 이러한 대안적 근대성 창조의

---

26) 이상 더릭의 근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Arif Dirlik, "Modernism and Antimodernism in Mao Zedong's Marxism," *Critical Perspectives on Mao Zedong's Thought*, New Jersey: Humanities Press, 1997, pp. 60-62 참조.

열망이 근대화주의에 의해 왜곡되었고 특권화된 기억에 의해 비역사화되었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27]

더릭과 마찬가지로 신좌파는 毛澤東의 사상과 이론 그리고 그의 사회주의 혁명 경험을 재검토함에 있어 중국 근대성 논의로부터 출발하였다. 사실, 신좌파 자체가 문혁을 봉건전제주의로 비판하며 등장한 1980년대의 계몽주의,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를 재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계몽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사상과 인식의 근저에 있는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절실했을 것이다.

그런데 신좌파에게 근대성이란 신 중심사회에서 인간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계기로 시작된 계몽시대 이후 서구사회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을 단순히 의미하지 않는다.[28] 그들이 이러한 판단을 갖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문혁 이후의 중국 현실에 대한 비판적 접근 때문이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화라는 환경 속에서 급속하게 진행된 개혁·개방의 진전은 국유재산 유실, 부정부패의 만연, 사회 불평등의 심화, 배금주의의 횡행, 환경 파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그들은 근대성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였다. 여기에는 근대성 혹은 근대로의 길이 반드시 하나이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회의가 포함된다.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전개와 그를 통해 강력하게 추진되는 서구적

---

27) 아리프 더릭, 황동연 역, 「역사와 기억 속의 혁명들」, 『포스트모더니티의 역사들: 유산과 프로젝트로서의 과거』, 창비, 2005, pp. 87-88.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문혁의 재평가와 함께 '역사로서의 문혁'을 강조하였다.(阿里夫·德利克, 「從歷史角度看「文革」的政治意義」, 『社會科學學報』(香港) 第7期, 1996年 春季 참조.)

28) 이러한 근대성 정의는 신봉수, 「마오의 사회주의 중국과 대안적 근대성」, 『中蘇硏究』 120, 2008/2009 겨울, pp. 131-134. 또한 그의 정의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전통과 구별되는 시기를 의미하고, 근대화는 산업화, 도시화 등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앞서 더릭이 비판한 근대화주의에 해당한다.

근대모델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 조건이 되어 버렸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신좌파는 '다원적 근대(성)'의 가능성을 모색[29] 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 '중국적 근대성'이란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30]

신좌파 가운데 王暉가 이 문제에 대해 천착하였다. 그에게 근대성이란 부정의 개념이라기보다는 '背離'的 개념이었다. 여기서 '背離'란 "추구와 비판이 공존하는" 상태, 하지만 그런 상호 모순이 오히려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그에게 근대성은 그 안에 내적 긴장과 모순을 포함한,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판하는 전통이었다."[31] 여기서 우리는 王暉의 근대성 개념이 더릭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王暉는 이러한 근대성 이해를 중국에 적용하여 毛澤東의 사회주의사상을 자본주의 근대화를 비판한 가운데 근대화를 추구한 '반(자본주의적)근대성적 근대성' 이론으로 규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는 毛澤東 한 개인 사상의 특징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의 이중 침탈의 역사적 상황에 처한 중국근대사상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康有爲의 大同思想, 章太炎의 평등사상, 孫文의 民生主義가 이들 범주에 들어갔다. 서구 근대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 부정적인 역사적 결과물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해야 했던 이중적 위치에 있던 이들은 불가피하게 자기모순적인 근대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毛澤東 사회주의혁명이 지닌 근대성의 모순에 대하여 王暉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32]

---

29) 다원적 근대성 혹은 복수의 근대성에 대해서는 S. N. Eisenstadt, "Multiple Modernity", *Daedalus* 129-1, Winter, 2000 참조.

30) 같은 맥락에서 더릭은 문혁을 포함한 중국혁명 자체를 '중국적 근대성'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모색이라 주장하였다.(아리프 더릭, 황동연 역, 「역사와 기억 속의 혁명들」, 앞의 책, p. 88.)

31) 王暉 , 김택규 역,『죽은 불 다시 살아나: 현대성에 저항하는 현대성』, 삼인, 2005, pp. 43-44와 그 안의 역주 참조.

> 그는 중앙집권적인 방식의 근대국가제도를 세우는 한편으로 그러한 제도 자체에 대한 문화대혁명식의 파괴를 진행하였다. 그는 공사제도와 집단경제의 방식으로 중국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분배제도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근대화가 초래한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피하려 했다. 또한 공유제 방식으로 전체 사회를 국가의 근대화 목표를 위해 조직하여 개인의 정치적 자주권을 박탈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기구가 인민주권을 억압하는 것에 깊은 반감을 지녔다.

이러한 모순에 대한 王暉의 지적은 문혁시기 毛澤東에 대한 전면적 비판에 대한 반비판의 성격을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毛澤東의 사회주의사상 또는 그의 이상은 자기모순적인 근대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적 근대성'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현실적 결과와 무관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문혁시기 毛澤東이 보여준 비극과 혼란상을 '중국적 근대성'이 내포한 역사적 모순의 결과로 환원시킬 위험성이 있었다.

한편, 王暉의 '반근대성의 근대성' 개념은 毛澤東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근대화를 비판한 가운데 근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毛澤東의 사회주의는 소련식 사회주의 근대화를 비판하는, 즉 '반사회주의근대성적 근대성' 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한 예로 서구의 신좌파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毛澤東의 비판을 근거로 소련 사회주의가 보여준 '경제결정론'에 대해 '계급투쟁론'을 앞세운 상부구조의 '문화혁명'을 毛澤東의 문혁으로 해석하였다.[33] 그렇기 때문에 문혁의 기원 문제와

---

32) 王暉, 「중국사상계의 현황과 현대성 문제」, 앞의 책, pp. 48-49 참조.

33) '경제결정론'의 한계를 보여준 스탈린주의에 반발한 서구의 신좌파 알뛰세르나 제임슨이 毛澤東의 문혁에 열광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Guo Jian 1999, pp. 346-349.)

관련하여 신좌파는 대체로 문혁의 세계사적 의의를 강조하고 특히 소련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던 것이며 王暉 역시 맑스주의를 하나의 근대화 이데올로기로 이해하였다.[34]

결국 王暉는 더릭과 마찬가지로 근대성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면서 근대성의 부정적 결과를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반근대성의 근대성' 이론을 창출했고 서구 자본주의 근대성과 소련 사회주의 근대성을 극복한 제3의 대안적 근대의 모색을 毛澤東의 사회주의혁명-특히 문혁 가운데에서 찾으려 했다. 여기서 문혁시기에 극복하고자 했던 사회주의 근대성의 실례는 走資派라는 외피로 등장한 당내의 관료제·관료집단·관료주의 문제였다고 할 것이다.

문혁을 통한 대안적 근대의 모색은 崔之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서구의 근대성 자체에 '규율'과 '해방'이라는 심각한 내재적 모순이 포함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정통 맑스-레닌주의 역시 서구 근대성의 모순의 집중적 체현이지 그 모순의 해결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35] 그에 따르면 맑스주의와 레닌주의는 해방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역사적 필연'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해방'을 구속·방해하였다.[36] 이것은 곧 서구 자본주의 근대성 해결을 위한 毛澤東의 문혁 실험을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정통 맑스-레닌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崔之元은 "인민대중이 역사를

34) 이 점은 그가 1990년대와 毛澤東시대를 비교하면서 근대화 이데올로기로서의 맑스주의와 반근대성적 근대화 이데올로기로서의 맑스주의를 대비시켰던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王暉, 「중국사상계의 현황과 현대성 문제」, 앞의 책, p. 52.)

35) 崔之元, 「마오 쩌둥 문화대혁명이론의 득과 실」, 앞의 책, p. 64.

36) 구체적으로 그는 맑스의 '생산력-생산관계' 이론이 내포한 기술결정론적 경향, 영국의 예를 통한 과도한 일반화, '국가소멸론'에 대한 과신 등을 적시하였다.(崔之元, 「마오 쩌둥 문화대혁명이론의 득과 실」, 앞의 책, pp. 67-72.)

창조한다"는 毛澤東의 관점에 주목하여 근대성의 모순이 그의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 부분적으로 극복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즉 인민의 역사적 주체성을 강조할 경우 '역사적 필연'의 규율을 초월한 해방이 가능해지고 또 계급에 대한 동태적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중국적 근대성'이 재구축될 수 있었다.

다음의 인용은 근대성 문제와 관련된 그의 문혁상을 요약적으로 보여준다.[37]

> 지금 우리는 20세기 중국의 '혁명건국'과 '개혁개방'의 풍부한 경험적 교훈을 기초로, 또 서구 주류학계에서 말하는 근대성에 대한 성찰적 반성을 거울삼아 毛澤東의 (문화대혁명) '대민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21세기 중국을 위해 … '정치민주'와 '경제민주'의 그림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

왜 그가 자신의 문혁 관련 논문 제목을 「마오 쩌둥 문화대혁명 이론의 득과 실」로 취했는지, 왜 그가 문혁에 대한 전면 부정이 아니라 '실' 이외에도 '득'에 주목하려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근대성에 대한 성찰적 반성을 통해 문혁의 '득'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21세기 중국의 '정치민주', '경제민주'라는 대안 모델로 승화시키기 위함이었다.

문혁의 득/실을 바탕으로 21세기의 대안모델을 추구했던 崔之元은 문혁 내의 '합리적 因素'의 제도화를 모색했다. 한 예로 그는 문혁의 '민중의 정치생활 참여'라는 '대민주'에 주목하였다.[38] 구체적으로 그는 "문혁을 7-8년마다 한 번씩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毛澤東의 주장을 끌어 들여 '정기적이고 전국적인 직접 보통선거'로 '대민주'의 제도화를 주장하였다. 그에게는 그것이 곧 '인민민

---

37) 崔之元, 「마오 쩌둥 문화대혁명이론의 득과 실」, 앞의 책, pp. 77-78.
38) 崔之元, 「發揮文革中的合理因素」, 『亞洲週刊』, 1996年 5月 26日.

주전정'의 본질이기 때문이었다. 毛澤東의 이러한 주장은 1966년 7월 8일 江青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그 일단을 찾을 수 있다.[39]

> 天下大亂을 통해 天下大治에 도달할 수 있다. 7, 8년 지나면 다시 한 번 (문혁이) 실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때가 되면) 牛鬼蛇神이 스스로 출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계급적 본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토대로 崔之元이 주장한 것은 실제적인 '문혁의 재등장'이 아니라 선거제 개혁을 통한 '문혁의 제도화'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영구혁명론'이라는 毛澤東의 기본적 혁명관과 관련된 '문혁 재등장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1당 독재체제 하의 현 중국에서 '전면적인 보통선거'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의 '전면적 보통선거'는 궁극적으로 국가주석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을 정기적이고 전국적인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했다. 자본의 개입이 사전에 방지된 공유제가 주도하는 '대민주' 선거가 되어야 하며, '개인화'된 선거로써 정당정치의 낡은 길을 뛰어 넘어야 했다.[40] 그의 전제는 현대 자본주의의 정당정치·금권정치를 극복하고 비공산당계열의 정당 출현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또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인민민주전정 혹은 무산계급전정 아래에서도 민주 선거가 가능하다는 깊은

---

39) 「給江青的信」(1966. 7. 8), 『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12冊, 中央文獻出版社, 1998, p. 71. 이 책의 주석에 따르면 이 편지의 일부 단락이 『人民日報』에도 게재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문혁 초기에 이미 이 주장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을 것이다.

40) 崔之元, 「마오 쩌둥 문화대혁명이론의 득과 실」, 앞의 책, pp. 76-80.

신념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현 중국의 정치상황을 묵인한 바탕에서 이루어진 迂遠하고 점진적인 개혁에 불과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의 문혁인식은 현실 정치 개혁과 대안 모색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비실증적 접근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3. '역사로서의 문혁' 인식

王紹光은 역사학자답게 학문적 역사적 분석 도구로서의 문혁 연구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①경제건설 중심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문혁의 派性 재발을 경계하려는 관방당국의 문혁 부정론이란 기존 틀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②기존의 문혁 이해에서 주요한 지위를 점한 '음모론'을 철저히 배격하고 이론적 접근을 해야 한다. ③반드시 毛澤東의 의도한 바대로 진행되지 않은 문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근원을 깊이 탐구해야 한다. ④상층 정치투쟁 내의 의문점을 규명해야 한다. ⑤각종 단위에 대한 미시사적 접근과 지방문혁 연구, 경제사·문화사·사회사 연구 및 세계에 대한 문혁의 영향 등을 탐구해야 한다. 더하여 그는 새로운 구체적 연구 주제로 '경제주의', '자살현상', '이혼현상', '지하공장', '재산몰수', '小報의 작용', '기자의 역할', '무장투쟁 현상', '무장투쟁 희생자', '통고·명령·수배령', '선전화·만화', '신조어·신속어', '종교인의 반응', '범죄단체', '아동희극', '사법행정의 변화', '시가와 음악', '휴식·복식·문화오락' 등을 제시하였다.[41] 이상 예시

41) 王紹光, 「拓展文革研究的視野」, 『二十一世紀』, 總第31期(1995. 10). 또한 이 글은 같은 제목으로 劉青峰 編, 『文化大革命: 史實與研究』,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1996에 재수록되었다.

한 것들은 모두 기존 문혁 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은 새로운 연구 분야이며 이러한 연구는 '역사로서의 문혁'이란 전제에서 가능하다.

'역사로서의 문혁'이란 定言은 문혁이 종결된 지 40년 가까이 지난 현재에 있어 어쩌면 당연한 명제일 수 있다.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42] 그렇다면 우선 '역사로서의 문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의 대표적 중국 현대사 연구자인 에쉐릭 등에 따르면 원론적으로 그것은 "후기 毛澤東 시기에 대한 연구가 이제 먼 과거를 대상으로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현 중국의 발전과 관련시켜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관련하여 그들은 '역사로서의 문혁' 연구 작업이 지니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43]

> 후기 毛澤東 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미래 구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우리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문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는 문제-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소비에트 블록과 명확하게 구별된 중국공산당의 길-에 대해 해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위의 주장을 통해 과거를 통한 명시적 미래 구상을 경계하면

---

42)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대표적 문혁 연구자 加加美光行 역시 "문혁은 '연구'와 '분석'의 대상이라기보다 일정 정도의 정치적 메시지의 대체였다는 편이 타당하다. 이것은 특별히 문혁 찬미파뿐만 아니라 문혁 부정파 가운데에도 다수 보이는 현상이다"라고 하였다.(加加美光行, 「文化大革命をどう見るか」, 『歷史のなかの中國文化大革命』, 岩波現代文庫, 2001)

43) Joseph W. Esherick, Paul G. Pickowicz, Andrew G. Walder,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as History: An Introduction",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as History*,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16-18.

서 과거의 중요 문제에 대해 천착하는 신중한 '역사로서의 문혁' 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안적 근대 모색이란 목적론적 문혁 인식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신중함을 통해 그들은 문혁의 복잡성·다원성을 강조하면서 문혁 참여의 다양한 동인들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문혁에 대한 획일적 이해나 일방적 단순화를 경계하고 史實에 근거한 사례적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한 예로 문혁시기 국가와 사회의 관계라는 핵심적 문제의 경우 위의 저자들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신중하다.44)

> 정치엘리트들이 인상적인 제도적 자원과 이념적 무기를 구사했음에 대해 인정하지만, (본서의) 논문들은 수많은 추종자를 조정하고 사회에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데에 있어서의 毛澤東과 당 엘리트의 능력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유사하게 기층의 사회적 역량이 지닌 탄력성과 창조성을 인정하면서도 저자들은 자율적인 정치 운동 과정에서 집단적 의지를 표현하는 사회적 행위자의 역량을 의심한다.

즉 '역사로서의 문혁'에 따르면 문혁이란 무정부상태와 독재, 대중 반란과 국가의 강압적 행동의 기묘한 조합으로 나타났고 그에 대한 설명은 국가-사회 사이의 즉흥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듯 국가와 사회적 행위자 사이의 교차, 상호침투,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 문혁의 역사는 앞서 신좌파가 주장하듯 대안적 근대 창출의 이념적 지향이나 毛澤東의 의지 그리고 일부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사회적 이익 등의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단순화되거나 일반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발적이고 복합적이며 개별적이어서 논리적으로 난해하기까지 하였다.45)

---

44) *ibid.*, p. 18.

따라서 신좌파의 문혁 인식은 대안적 근대 모색이라는 분석틀과 함께 '역사로서의 문혁' 인식이라는 또 다른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홍위병 분파 투쟁을 설명할 때, 과거 강조되었던 黑五類의 조반파 대 紅五類의 보수파라는 사회적 분석이 지니는 결정론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출신 배경 이외의 다양한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대중운동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연구 경향 역시 동일하게 '역사로서의 문혁' 인식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46] 이 견해에 따를 경우 홍위병의 정치적 선택은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었다. 또한 그것들은 계급 혹은 집단이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열정, 이상 그리고 심각한 이념적 토론이 중요했다.[47]

'역사 史實로서의 문혁'은 '기억으로서의 문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문혁에 관한 기억은 충분히 상호 대립적이고 모순적이고 파편적이어서 문혁에 대한 평가 자체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80년대 소위 '傷痕文學'이란 문혁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문학적 경향이라 할 것이다. 문혁 이후 혁명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각종 죄행을 폭로하고 혁명가의 죄의식

---

45) 백승욱의 책 제목 『중국문화대혁명과 정치의 아포리아』(그린비, 2012)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6) 전자의 경향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Hong Yung Lee, "The Radical Students in Kwantung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China Quarterly* 64 (December 1975); Hong Yung Lee, *The Politics of the Chinese Revolu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이고 후자의 대표적 예는 Andrew G. Walder, "Beijing Red Guard Factionalism: Social Interpretations Reconsidered," *Journal of Asian Studies* 61-2, 2002.이다. 후자에 따르면 홍위병의 파벌은 사회계층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상·하의 정치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47) 이러한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 Joseph W. Esherick, Paul G. Pickowicz, Andrew G. Walder 등이 편집한 책에 수록된 Xiaowei Zheng의 "Passion, Reflection, and Survival: Political Choices of Red Guards at Qinghua University, June 1966-July 1968"이다.

과 각성이 그 배경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또 하나의 기억이고 또 하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문혁시기의 비이성에 대한 반발이 계몽과 근대성을 추구하는 1980년대의 신계몽주의로 나타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단지 서구 근대성에 대한 무비판적 탐닉 또는 미혹이라는 비판적 시각 속에서, '傷痕文學'의 본질이 재해석되기도 하였다.[48] 더릭 역시 이들 대중문학이 변태성욕과 야만성으로 가득찬 선정적인 이야기로 관음증에 빠진 독자를 오도함으로써 정치적 쟁점을 용해시켜 비정상적 중국이라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적 재현을 창출했다고 비판하였다.[49] 이러한 주장들은 '역사로서의 문혁'을 추구하기 위해서 문혁과 관련된 기억과 회고에 대해 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이하에서는 '역사로서의 문혁'과 관련된 주요 쟁점인 문혁의 실패 원인, 코뮌과 혁명위원회에 대한 평가, 대중운동에 대한 평가, 문혁의 폐해 등에 대해 신좌파가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를 중심으로 그들의 문혁 인식을 검토할 것이다.

'10년 동란' 또는 '10년 내란'으로까지 규정된 문혁은 개혁·개방파는 물론 그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신좌파에게도 궁극적으로 실패한 운동이었다. 비극적 실패라는 결론엔 모두 동의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실패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실패의 교훈은 무엇인지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정파 또는 이론가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앞서 소개한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는 毛澤東思想에서 일탈한 毛澤東의 과오를 가장 중요한 실패 원인으로 꼽고

48) 이러한 신계몽주의의 비판의 예는 張頤武, 「闡釋'中國'的焦慮」, 『二十一世紀』, 1995年 4月號, 總第28期 참조. 王暉 역시 신계몽주의 사상이 개혁·개방의 이데올로기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비판적으로 이해하였다.(王暉, 「중국 사상계의 현황과 현대성 문제」, 앞의 책, p. 55.)

49) 아리프 더릭, 황동연 역, 「역사와 기억 속의 혁명들」, 앞의 책, pp. 72-73.

있다. 이는 문혁 실패를 공산당이라는 조직의 사상적 오류가 아니라 毛澤東 개인의 오류로 환원시킴으로써 중국공산당 체제의 안정적 지속을 우선적 과제에 두면서 문혁을 지렛대로 삼아 급진적인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문혁과 개혁·개방을 단절적 대립적 역사과정으로 이해하는 현 중국의 정통적 관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문혁과 그 이후를 연관시켜 이해하면서 그 비극을 분석한 예를 王暉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王暉는 '탈정치화의 정치화'라는 개념을 통해 중국의 현 상황은 물론 문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정치화'란 정치논쟁, 이론탐구, 사회적 자치, 黨·國體制 내외의 정치투쟁 및 정치조직과 언론 공간의 비약적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혁 초기 '4대 민주'를 통한 대중적 정치운동의 고양으로 표현되었다. 동시에 그의 '탈정치화'는 사회적 자율·자치의 가능성을 말살하는 양극화된 파벌투쟁, 정치논쟁의 권력투쟁으로의 전화, 정치적 계급관념의 본질주의적 계급론의 전화 등을 의미한다.[50] 결국 王暉가 보기에 문혁의 비극은 문혁 초기까지 활발하게 진행된 '정치화'가 '탈정치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그렇다면 왜 '탈정치화'되었는가? 그리고 언제부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는가? 위에서 예시하였듯이 파벌투쟁, 권력투쟁, 본질주의적 계급론 등이 '탈정치화'의 징후이며 또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50) 그의 '탈정치화의 정치화'는 앞서 살펴본 그의 또 다른 주장 '반근대성의 근대성'을 연상시키는 논리적 구조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현대화, 시장화, 글로벌화, 발전, 성장, 全面小康, 민주 등의 개념은 모두 '탈정치화', '반정치화'의 주요 개념이다. 또한 그의 '정치'는 정치적 가치와 이해관계에 기초한 정치조직, 정치논쟁, 정치투쟁, 사회운동 결국 정치적 주체 사이의 상호운동을 가리킨다.(王暉, 「中國における1960年代の消失-脫政治化の政治をめぐって」, 『世界史のなかの中國』, 青土社, 2011, p. 78, pp. 80-81.)

이 삼자는 기본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계급론이 보다 근본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 내외의 走資派를 상대로 한 영구혁명인 문혁은 계급투쟁적 성격을 불가피하게 띨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탈정치화'의 본질주의적 계급론은 구체적 역사 현실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했는가? 王暉는 대표적인 예로 遇羅克의 血統論 비판을 들고 있다. 주지하듯 遇羅克은 문혁 초기 간부 자제를 중심으로 한 홍오류가 지주, 자본가의 자제와 같이 출신이 나쁜 흑오류를 탄압하는 정치적 풍토에 반기를 들며 출신·혈통주의를 강하게 비판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51] 그렇다면 王暉에게 문혁의 비극은 계급의 '정치성' 혹은 '주관능동성'을 부정하고 본질주의적 접근을 중시하는 '탈정치화'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52] 그러한 의미에서 王暉는 문혁의 종언은 문혁 이후가 아니라 이미 문혁에 내재해 있었다고 해석했다.[53]

崔之元 역시 문혁의 실패를 인정한 뒤 그 원인으로 계급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문혁 실패의 원인과 관련하여 毛澤東의 '당

---

51) 문혁시기 혈통론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학술적 검토는 加加美光行 譯編,『資料 中國文化大革命 - 出身血統主義をめぐる論爭 -』, りくえつ刊, 1980 참조.

52) 王暉는 맑스의 계급관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계급관계의 도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계급의식과 계급투쟁은 항상 기초적인 계급구조의 제약을 받고 특정의 생산양식과 계급구조에 대한 자각적인 개조로서 표현된다. ② 계급은 일종의 관계개념이므로 계급관계에는 내재적, 근본적인 착취와 피착취라는 특정의 관계를 객관적인 기초로 하는 대항성을 지닌다. ③ 계급 사이의 대항성은 계급형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결국 그는 '구조적 계급관념'과 '정치적 계급관념'을 이용하여 계급관념을 분석하며 계급의 정치적·상대적·주관적 성격을 강조하였다.(王暉,「中國における1960年代の消失 - 脫政治化の政治をめぐって」,『世界史 のなかの中國』, 青土社, 2011, pp. 62-64.)

53) 王暉는 이탈리아 문혁 전문가인 사회학자 Alessandro Russo의 연구를 토대로 문혁을 고도의 정치화된 시대로 보고 그 정치화의 종언이 70년대가 아니라 문혁 개시 후 바로 파벌투쟁과 폭력충돌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王暉, 위의 글, p. 39.)

내 주자파' 이론과 '자산계급법권' 이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문혁의 '대민주'가 실천과정에 왜곡되었고 문혁 후기 억압적 독재 분위기가 만연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문혁시기 자산계급의 의미를 ①신중국 성립 이전 부르주아계급의 잔여세력, ②사람의 정치적 태도·행위 혹은 계급적 입장, ③당내관료집단 등으로 구분한 리차드 크라우스의 연구를 인용하였다.[54] 이렇듯 '자산계급'에 대한 다기한 개념은 문혁에 참가한 각 파벌들에 의해 각기 다르게 전유됨으로써 문혁의 본래 의의가 상실되어 버렸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毛澤東의 '자산계급법권' 이론 자체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崔之元은 그의 계급론이 정통 맑스-레닌주의의 낡은 '담론구조'와 철저하게 결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혁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평가는 崔之元이 맑스주의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문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지적하였듯이 '신진화론', '분석적 맑스주의', '비판법학'과 같은 새로운 서구이론을 중심에 두고 사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毛澤東에 의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한 때 문혁의 이상으로 등장한 코뮌의 문제는 문혁 시기 각 세력의 정치적 입장과 노선을 규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용되었다.[55] 이와 관련하여 王暉는 먼저 파리코뮌에서 보이는 인민의 고도자치 추구를, 사회적 노동분업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관료제(주의)와 대

54) Richard C. Kraus, *Class Conflict in Chinese Soci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건국대 중국문제연구소 역, 『중공의 계급구조와 그 갈등』, 汎潮社, 1986); 崔之元, 「마오 쩌둥 문화대혁명이론의 득과 실」, pp. 62-63, 77 참조.

55) 이하, 문혁시기 파리코뮌 문제의 등장과 上海人民公社에 대해서는 이정희, 「문화대혁명 초기 상하이인민공사에 관한 연구: 파리코뮌 모델과 노동자 조반운동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최은형, 「王力과 文化大革命」, 영남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참조.

립하는 자율적 경향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그에게 이 문제는 대중을 지도하는 혁명정당이 어떻게 자신의 관료화를 회피하고 국가를 자기 부정하는 경향성을 내포한 정치형태(참가형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관련된다. 王暉에게 1966년의 「5·7지시」가 관료제 확립과 연결된 사회분업 모델을 근본부터 해체한 문혁의 강령성 문건이라 높이 평가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 지시란 잘 알려져 있듯이, 정치, 군사, 문화, 생산을 학습할 대학교로 군대를 만들고 군인, 농민, 학생, 상인, 당정 기관원 등의 분업 활동을 초월한 종합적 기능인 창출을 강조한 毛澤東의 것이었다.[56] 毛澤東의 더 깊은 뜻은 이 지시를 확대 선전한 다음의 『人民日報』에 잘 나타났다.[57]

> 노동자와 농민, 도시와 농촌,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의 차별을 축소할 수 있고 도시와 공업의 기형적 발전을 회피할 수 있으며 지식인의 노동화, 노동인민의 지식화를 이룩할 수 있고 고도의 정치적 각성과 전면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억만 공산주의 신 인간을 배양할 수 있다.

이는 문혁의 '3대 차별' 철폐 의지가 잘 반영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王暉는 문혁이 관료제 확립과 연결된 사회 분업 모델을 근본부터 해체하고 위계관계와 계급적 대항관계를 재생산하는 일체의 정치 메카니즘과 생산양식 그리고 문화적 조건을 철저하게 개조시키려는 이상을 추구했으며 그 때문에 파리코뮌과 노동 분업의 파괴를 연결시킴으로써 공산주의 신 인간 배양을 위한 사회적 자치 실험을 실행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실험의 구체

---

56) 「對總後勤部關于進一步搞好部隊農副業生産報告的批語」(1966. 5. 7, 14), 『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12冊, 中央文獻出版社, 1998, pp. 53-56.

57) 「全國都應該成爲毛澤東思想的大學校-紀念中國人民解放軍建軍三十九周年」, 『人民日報』, 1966. 8. 1.

적 예로 노동자대표대회, 농민대표대회, 홍위병대표대회를 거론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상해인민공사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다. 이렇듯 상해인민공사에 대해 직접적 설명을 회피한 채 코뮌의 의의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王暉가 毛澤東에 의한 상해인민공사의 좌절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함으로써 毛澤東과 문혁에 대한 신좌파의 단편적 인식의 일단을 드러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코뮌에 대한 王暉의 높은 평가는 상해인민공사를 부정하고 성립된 3결합의 혁명위원회를 대중운동과 관료화한 국·당체제의 타협이라 파악하는 부정적 평가와 연동된다. 王暉는 그것이 비록 일부 코뮌적 요소를 포함하지만 결국엔 노동자, 농민, 학생, 병사 등의 대표가 권력구조의 주변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사실, 王暉는 관료국가기구에 대한 분명한 저항의 양상을 띠고 등장한 코뮌 모델의 등장이 혁명위원회라는 준정부 조직으로 빠르게 변모하여 위계제(등급제)를 형성하고 성분 문제, 신분론이 발전하게 된 일련의 상황을 '문혁의 역설'로 인정하였다. 결국, 王暉가 보기에 문혁의 현실은 국가기구의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제도의 재건립에 있었다.[58]

그렇다면 문혁시기 코뮌의 이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혁명위원회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던 新思潮派 혹은 極左派에 대한 王暉의 인식은 어떠한가? 그는 이 문제에 관련하여 1960년대 말 武漢 일부 지역서 전개된 대중의 反復古運動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혁명위원회가 과거의 당·정 관료체제에 기초하고 있음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라고 지적했을 뿐이었다.[59] 그러나 저명한 楊曦光

58) 王暉, 백승욱, 「근대성의 역설 - 중국, 근대성, 전지구화 -」, 『진보평론』 6, 2000, 겨울, pp. 335-360 참조.

59) 王暉, 「中國における1960年代の消失-脱政治化の政治をめぐって」, p. 117, 주) 23 참조.

의 省無聯이나 廣東의 8·5公社 그리고 기타 신사조파의 주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 코뮌과 혁명위원회 문제는 문혁 조반파 내부의 사상적 분열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라 할 것이다.[60] 이하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신좌파 지식인 가운데 문혁에 관해 가장 많은 연구를 진행한 王紹光의 설명에 주목하여, 신사조파에 대한 평가는 물론 문혁의 한계와 극복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61]

王紹光은 "문혁이 '위로부터의 혁명'이며 造反派는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일어난 것이 아니다"[62]라는 전제에서 그들의 주된 문혁 참여 원인은 파괴와 복수이며 사회 모순에 대한 구조적 인식도 없고 또 그 때문에 건설과 개혁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운동 참여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조반파는 바로 집단행동에서 이탈하거나 逍遙派가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조직에 남아 경제주의적 이익을 쫓았다. 문혁 조반파 대중에 대한 그의 부정적 평가는 조반파 지도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들에 대한 王紹光의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예를 좀 길지만 그대로 인용해보자.[63]

> 심지어 조반파 지도자들은 단지 반란가(rebels)에 불과하지 혁명

60) 문혁 극좌파 혹은 신사조파에 대한 연구는 孫承會, 「文化大革命 極左派 사상의 형성 - 湖南 省無聯을 중심으로 -」, 『中國近現代史硏究』 57, 2013; 孫承會, 「湖南文革의 전개와 省無聯」, 『民族文化論叢』, 49, 2011; 孫承會, 「文化大革命의 異端者들-廣東 極左派를 중심으로」, 2013년 제56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문 참조.

61) 이하 王紹光의 논의는 Shaoguang Wang, "'New Trends of Thought' on the Cultural Revolu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1999), 8(21) 참조.

62) Shaoguang Wang, "'New Trends of Thought' on the Cultural Revolution," p. 197.

63) Shaoguang Wang, "'New Trends of Thought' on the Cultural Revolution," p. 198.

> 가(revolutionaries)는 아니었다. 毛澤東이 그들에게 奪權을 요구했을 때 그들 모두는 열광적으로 호응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고상한 혁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권력가가 될 전망에 이끌렸기 때문이었고 권력을 장악하기 원했다. 그들은 문혁 전 중국에 존재한 사회적 병폐를 극복할 구조적 방법에 관한 어떤 생각도 지니지 않았고 새로운 권력가에 의해 구 권력구조가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결코 궁금해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권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다. 대신 그들은 권력 그 자체에 관심을 지녔다. 1967년과 1968년 전개된 사건을 통해 모든 조반조직의 주된 관심이 단지 권력의 몫을 최대화하는 데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王紹光의 이러한 인식은 신사조파를 일반 조반파와 대비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좌파와 달리 그가 문혁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주장[64]까지 고려한다면 그렇게 의외의 주장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의 설명은 홍위병 활동에 직접 참가했던 경험, 그리고 자신의 고향 武漢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문혁역사 연구와 그를 위한 방대한 문혁 관련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형성된 결론이었다. 하지만, 王紹光이 보기에 신사조파는 1871년 파리코뮌을 모델로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고자 한 "통찰력 있는" 집단이었다. 신사조파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인용에서 보듯이 권력의 '양'만 추구하는 일반 문혁 대중 또는 지도자와는 반대였다.[65]

---

64) 瀧田豪는 그의 박사논문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단지 그가 毛澤東 이념의 정확성을 인정했다는 뉘앙스 정도는 엿볼 수 있다고 하였다.(瀧田豪, 앞의 글, pp. 253-254, 주 68) 참조.)

65) Shaoguang Wang, "New Trends of Thought' on the Cultural Revolution",

> 반면 신사조파는 현존 사회·정치질서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했다. 이들이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공유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즉 그들은 젊고 黑五類 출신이며, 권력을 획득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인생 경험이 많지 않아 평등주의적 유토피아를 품었고, 문혁 전의 사회질서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반파가 되었다. 또한 그들은 개인적으로 권력투쟁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방식으로 사회 변화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유사점이 있었다. 모든 신사조파 이론가들은 특별히 뛰어나며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로 무장되었다.

이러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王紹光에게 그들의 한계는 분명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미숙했고 그들이 참조할 수 있었던 것은 毛澤東主義, 맑스-레닌주의 관련 원전과 공산당의 공식 발표였고, 그 가운데 자신들의 견해를 지지할 수 있는 부분만 맥락 없이 발췌해 이용하는 데에 능할 뿐이었다. 또한 이들의 한계는 수단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데에 있었다. 그들은 기존의 국가 체제 파괴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였고 관료주의와 불평등의 가능성을 없애 줄 새로운 형태의 정부 건립이나 중화인민공사의 구체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66] 하지만 그렇다고 신사조파가 문혁 자체의 의미를 독립적으로 추적하고 문혁파의 권위에 도전하는 가장 비판적 정신을 지녔다는 의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음을 王紹光은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혁의 경제정책과 관련 인식을 崔之元을 통해 검토해보자. 그는 경제학자로서 당연히 毛澤東의 경제정책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구체적으로 그는 毛澤東의 공장경영방식 가운데 하나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8-21, Center for Modern China, 1999, p. 214.

66) 따라서 印紅標는 문혁 신사조파나 극좌파를 무정부주의와 관련시켜 비판하면서 그 한계를 더욱 강조하였다.(印紅標, 『失踪者的足跡-文化大革命期間的青年思潮-』,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2009, pp. 124-131 참조.)

인 소위 “兩參一改三結合”[67]에 주목했다. 그것은 毛澤東에 의해 ‘鞍鋼憲法’으로 명명된 기업관리 준칙을 가리킨다. 1960년 3월 22일, 毛澤東은 鞍山鋼鐵公社의 보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안강헌법이 遠東, 중국에서 출현했다”라고 선언하였다. 그것은 정치우선, 당 지도강화, 대중운동, 공동관리, 기술혁신을 골자로 한 혁신 조치로 문혁 전시기에 걸쳐 기업경영의 기본 방침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그 이전에 신성불가침의 권위를 지닌 것은 一長制[공장장 단독 책임제], 專家治廠, 利潤掛帥[이윤제일주의], 물질자극 등을 특징으로 하는 소련의 마그니트고르스크 철강콤비나트 관리제(‘馬鋼憲法’)였다.[68] 崔之元은 毛澤東이 ‘마강헌법’이 아닌 ‘안강헌법’을 채택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것을 一長制로 표현되는 서구의 포드주의에 대한 도전의지로 파악하였다. 이로써 그는 대약진운동과 문혁의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안강헌법’이 지닌 경제민주의 정신을 향후 중국 민족공업 진흥을 위한 정신과 자산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한 예에 불과하지만 문혁시기 毛澤東의 경제정책의 지향과 신좌파의 인식을 요약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69]

---

67) 이는 간부들이 노동에 참여하고 노동자들은 관리에 참여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을 고치며 또한 관리자・노동자・기술자가 생산실천과 기술혁신에 협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68) 「中央轉發鞍山市委關于技術革新和技術革命運動展開政況報告的批語」(1960. 3. 22),『建國以來毛澤東文稿』9, 中央文獻出版社, 1997, pp. 89-92; 「脫毛澤東시대 중공 어떻게 변하나』7,『京鄕新聞』, 1978. 3. 20.

69) 문혁 이후 사라진 ‘안강헌법’에 崔之元이 다시 주목하게 된 계기는 일본, 스웨덴, 미국 등 선진 공업국가에서 수직명령을 핵심으로 하는 포드식 분업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포스트-포드주의’(post-Fordism)의 정수를 ‘안강헌법’으로 표현된 毛澤東思想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崔之元의 이러한 주장과 그에 대한 汪丁丁 등의 반론 그리고 재비판과 문혁기 吳江, 蘇南의 농촌경제 발전이 지닌 ‘포스트-포드주의’적 함의에 대해서는 崔之元, 「鞍鋼憲法與後福特主義」,『讀書』(1996년 3월), http://www.aisixiang.com/data/12756-2.html(검색일: 2013년 9월 29일.) 또한 ‘적기 생산 혹은 재고 없는 생산’(just-in-time, or inventoryless production)과 ‘고정비용의 탄력성’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포스트포드주의와 경제민주와의 관계

4. 결 론

이상 王暉, 崔之元, 王紹光 등 3인을 중심으로 중국 신좌파가 지닌 문혁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래 신좌파는 단일한 정체성을 지닌 정치 조직도 아니며 따라서 그 내부에 다양한 사상적 정책적 지향을 지닌 지식인들로 구성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집단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문혁 인식 역시 단일하지 않았다. 게다가 신좌파에 대한 비판은 광범하게 진행되었다. 예컨대, 인민주의(populism), 신민족주의, 국가주의, 중국 지식계의 '문화적 公敵', 橫向意識[수평적 사고]의 부재, 사회주의 근대성에 대한 찬양, 정부에 대한 비판성의 상실 등이 그 근거로 거론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의 와중에서 신좌파가 문혁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했다. 더욱이 그들의 문혁 인식에 대한 비판은 가혹했다. 그들을 가리켜 '문혁주의자' 혹은 '문혁시대의 극좌파'라는 비난이 일었고 毛澤東 혁명전통에 대해 "열렬히 찬양"하지만 착오에 대한 응분의 비판을 하지 않으며 문혁에 대한 뼈저린 체험이 없다고 공격받았다.[70]

그렇다면 그들의 문혁 인식에 대한 비판은 과연 근거를 지닌 것인가? 毛澤東思想과 문혁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새로운 세계적 흐름 가운데 신좌파는 문혁의 전면 부정, 망각이란 현실을 거부하고 그 안에서 '합리성'과 '이성'을 찾고 '미래의 대안적 근대성'을

에 대해서는 崔之元, 「경제민주의 두 가지 함의」, 앞의 책, pp. 112-113 참조.

70) 이상 신좌파에 대한 비판은 이욱연, 「중국 지식인 사회의 새로운 동향」, 『중국현대문학』, 16, 1999, pp. 496-500; 조경란, 「중국에서 신좌파와 비판적 지식인의 조건 - 왕후이의 "중국모델론"과 21세기 지식지형의 변화 -」, 『시대와 철학』, 24-1, 2013; 성근제, 「왕후이(王暉)는 타락하였는가?」, 『동아시아 브리프』 6-4, 2011.

모색하였다. 동시에 신좌파는 '반정치성의 정치성'(王暉), '낡은 담론구조'의 한계(崔之元), '혁명가가 아닌 반란가'의 한계(王紹光) 등을 통해 문혁의 폐해와 실패를 지적하였다. 신좌파의 이러한 문혁 평가의 배경에는 '반근대성적 근대성'의 추구(王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제도적 초월(崔之元),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또는 사회과학적 분석(王紹光) 등 접근 방법의 상이함이 존재했다.

이렇듯 신좌파는 문혁 전면 부정론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문혁의 실패를 인정하였다. 그들은 득/실, 공/과, 이성/광란, 이념/정치라는 상호대립적인 두 요소가 문혁에 동시에 내포되어 있음에 대해 동의한다. 그런데 신좌파가 문혁 평가에 집착하는 목적은 단순히 '역사로서의 문혁'을 추구하려는 데에만 있지 않다. 그보다는 전지구적 자본주의화시대에 이루어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심화되어 가는 새로운 차별, 새로운 사회모순의 극복을 위해 문혁시기에 시도되었던 서구 자본주의와 소련 사회주의와 구별되는 실험을 새롭게 평가하여 중국의 현재와 미래에 적용하려는 현실적 필요에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실증적 역사가라기보다는 현실 참여 또는 현실 비판적인 지식인 집단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혁이란 '역사로서의 문혁'이라기보다는 '신념으로서의 문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신좌파는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국가 사회 속의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와 자율을 존중하며 서구 근대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라는 국가 단위의 근대화 추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현 국가 정책과 이념, 그리고 현실을 비판하지만 당·국가체제를 부정하거나 탈민족주의의 주장으로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는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신좌파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장의 유혹이 아니라 제국주의 위협 하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혹은 국가적 발전 속에서 당국의 담론과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71] 최근 '중국 모델론'의 대두와 함께 王暉의 친 정부적 태도를 두고 변절 논란이 발생한 것은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혁인식과 관련하여 첨언한다면 이는 신좌파가 문혁 내의 자율적 민간사조 또는 이단사조, 극좌파의 지향에 온전히 동의할 수 없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좌파가 문혁이란 禁區를 깨고 비판을 감수하며 본격적인 공론의 장으로 그것을 끌어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문혁시기 신사조 혹은 극좌파의 비판적 정신을 실질적으로 체현했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12冊, 中央文獻出版社, 1998.

王紹光, 『理性與瘋狂 - 文化大革命中的群衆 -』, 香港: 牛津大學出版社, 1993.

劉青峰 編, 『文化大革命: 史實與研究』,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1996.

印紅標, 『失踪者的足跡 - 文化大革命期間的青年思潮 -』,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2009.

加加美光行, 『歷史なかの中國文化大革命』, 岩波書店, 2001.

加加美光行 譯編, 『資料 中國文化大革命 - 出身血統主義をめぐる論爭 -』, りくえつ刊, 1980.

Hong Yung Lee, *The Politics of the Chinese Revolution*, Berkeley: University

71) 王超華, 「90년대 중국 사상계의 정신」, 『고뇌하는 중국: 현대 중국 지식인의 담론과 중국 현실』, 길, 2006, p. 55.

of California Press, 1978.
Richard C. Kraus, *Class Conflict in Chinese Soci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건국대중국문제연구소 역, 『중공의 계급구조와 그 갈등』, 汎潮社, 1986.)
Wang Shaoguang, *Failure of Charisma: The Cultural Revolution in Wuhan*,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백승욱, 『문화대혁명 - 중국 현대사의 트라우마 -』, 살림, 2007.
백승욱, 『중국문화대혁명과 정치의 아포리아』, 그린비, 2012.
왕후이 저, 김택규 역, 『죽은 불 다시 살아나: 현대성에 저항하는 , 현대성』, 삼인, 2005.
王紹光 김갑수 역, 『民主四講: 중국, 경제성장의 길목에서 민주주의를 묻다』, 에버리치홀딩스, 2010.
王暉,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창비, 2003.
이창휘・박민희 편, 『중국을 인터뷰하다』, 창비, 2013.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 편, 허원 역, 『정통중국현대사 - 중국공산당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 -』, 사계절, 1990.
崔之元,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창비, 2005.

郭建, 「當代左派文化理論中的文革幽靈」, 『二十一世紀』, 2006. 2, 總第93期 참조.
郭建, 「文革思潮與「後學」」, 『二十一世紀』 35, 1996.
徐友魚, 「文革對當代中國政治的影響」, http://www.aisixiang.com/data/66291.html(검색일 2013. 8. 13.)
阿里夫・德利克, 「從歷史角度看「文革」的政治意義」, 『社會科學學報』 (香港) 第7期, 1996年 春季.
王紹光, 「拓展文革研究的視野」, 『二十一世紀』, 總第31期(1995. 10.)
王紹光, 「瘋狂歲月里的理性選擇 - 訪王紹光教授談他的文革經歷與文革研究 -」, http://www.aisixiang.com/data/66150.html(검색일자: 2013. 8. 12.)

張頤武,「闡釋'中國'的焦慮」,『二十一世紀』28, 1995年 4月號.
崔之元,「發揮文革中的合理因素」,『亞洲週刊』, 1996年 5月 26日.
崔之元, 「鞍鋼憲法與後福特主義」, 『讀書』(1996年 3月), http://www.aisixiang.com/data/12756-2.html(검색일: 2013. 9. 29.)
宮川彰,「中國のマルクス經濟學研究はどうないつているか」,『季刊中國』101, 夏季號, 2010.
瀧田豪,「中國'新左派」の民主化論-王紹光を中心に-」,『産大法學』43-3・4, 2010.
王暉,「中國における1960年代の消失-脫政治化の政治をめぐって」,『世界史のなかの中國』, 青土社, 2011.

Andrew G. Walder, "Beijing Red Guard Factionalism: Social Interpretations Reconsidered," *Journal of Asian Studies* 61-2, 2002.
Arif Dirlik, "Modernism and Antimodernism in Mao Zedong's Marxism," *Critical Perspectives on Mao Zedong's Thought*, New Jersey: Humanities Press, 1997.
Guo Jian, "Resisting Modernity in Contemporary China: The Cultural Revolution and Postmodernism", *Modern China* 25-3, July 1999.
Hong Yung Lee, "The Radical Students in Kwantung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China Quarterly* 64, December 1975.
Jeseph W. Esherick, Paul G. Pickwicz, and Andrew G. Walder,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as History*,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S. N. Eisenstadt, "Multiple Modernity", *Daedalus*, 129-1, Winter, 2000.
Shaoguang Wang, "'New Trends of Thought' on the Cultural Revolu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8-21, 1999..

김도희,「중국의 신좌파와 자유주의: 1990년대 지식인 논쟁을 중심

으로-」,『세계지역연구논총』, 26-3, 2008.
박승현,「세계화와 90년대 중국 지식인의 대응: '자유주의'와 '신좌파'를 중심으로」,『철학탐구』19, 2006.
박영미,「계몽과 현대성-중국 신좌파의 현실인식과 지향」,『한국철학논집』29, 2010.
성근제,「왕후이(王暉)는 타락하였는가?」,『동아시아 브리프』6-4 ,2011.
성근제,「왕후이가 바라보는 중국 정치 개혁의 방향」,『역사비평』99, 2012.
孫承會,「"禁區"에 대한 도전-중국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歷史學報』191, 2006.
孫承會,「文化大革命 極左派 사상의 형성-湖南 省無聯을 중심으로-」,『中國近現代史硏究』57, 2013.
孫承會,「文化大革命의 異端者들-廣東 極左派를 중심으로」, 2013년 제56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문.
孫承會,「湖南文革의 전개와 省無聯」,『民族文化論叢』49, 2011.
신봉수,「마오의 사회주의 중국과 대안적 근대성」,『中蘇硏究』120, 겨울, 2008/2009.
아리프 더릭, 황동연 역,「역사와 기억 속의 혁명들」,『포스트모더니티의 역사들: 유산과 프로젝트로서의 과거』, 창비, 2005.
안인환,「중국 '신좌파'의 대중문화 담론 고찰」,『중국현대문학』53, 2010.
안치영,「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 자료 안내」,『현대중국연구』8-2, 2007.
王暉,「신비판정신」,『고뇌하는 중국: 현대 중국 지식인의 담론과 중국 현실』, 도서출판 길, 2003.
王暉, 백승욱,「근대성의 역설-중국, 근대성, 전지구화-」,『진보평론』6, 겨울, 2000.
王暉, 성근제 역,「충칭사건: 밀실정치와 신자유주의의 권토중래」,『역

사비평』 99, 2012.
이욱연, 「중국지식인 사회의 새로운 동향: '신좌파'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16, 1999.
조경란, 「중국에서 신좌파와 비판적 지식인의 조건」, 『시대와 철학』 24-1, 2013.
조경란, 「중국에서 신좌파와 비판적 지식인의 조건 - 왕후이의 "중국 모델론"과 21세기 지식지형의 변화 -」, 『시대와 철학』 24-1, 2013.
황희경, 「현대중국의 '신좌파'와 자유주의 논쟁」, 『동아시아역사연구』 6, 1999.

新左派对于文化大革命的认识

孙 承 会

新左派在再次评价毛泽东思想与文革的世界性潮流之上，拒绝全面否定、忘却文革的现实。它反而在文革找到'合理性'与'理性'，摸索'未来的代案近代性'。与此同时，新左派通过'反政治性的政治性'(王晖)、'旧的谈论结构'的限度(崔之元)和'不是革命家而是叛乱家'的限度(王绍光)等，批评了文革的弊端和失败。新左派如此评价文革的背景里存在着接近方式的与众不同；追求'反近代性的近代性(王晖)、社会主义和资本主义的制度上的超越(崔之元)、按个人经验进行历史的或社会科学的分析(王绍光)。

如此，新左派在批判文革全面否定论的同时，承认文革的失败。他们同意文革同时包含了得/失、公/私、理性/狂乱、理念/政治的相互对立的两个要素。可是新左派对评价文革着重的目的不只是追求'历史的文革'。在全球的资本主义化时代进行的中国式改革开放以后，新的歧视、新的社会矛盾渐渐深化。此时，文革正好试图克服这些问题。新左派的目的在于，重新评价文革及把它适用于中国的现在和未来。因此，他们原本不是实证的历史家，而是参与现实或批判现实的知识分子群体。因而，对他们来说文革不是'历史个文革'，而更有可能是'信念的文革'。

关键词: 文化大革命, 新左派, 代案近代, 近代性

손승회
소속: 영남대학교 사학과
주소: 712-749 경상북도 경산대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전화번호: 053-810-2227
전자우편: sonshoi@ynu.ac.kr

이 논문은 2013년 12월 01일 투고하여
2013년 12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31일 게재 확정함.